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도서 탐색

The Study of Exploring Quality Books for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서미옥(Mee-Ock Suh)¹⁾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books of youngsters who struggled with typical problems in adolescent period. Literature could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helping young people cope with developmental change. In bibliotherapy, the counselor provides guidance in the solution of personal problems through directed reading. Young people would solve and overcome their problems after reading useful books. So we need to carefully select books for the Youth. Selecting high-quality books that match the young person's reading level and interest were very important. Twenty three books that offer solutions that are likely to be successful in the young people's situation were gathered by 322 participants. Method of collecting materials was through a questionnaire. In addition results based on obtaining books showed that counselors provided reading guidances and were concerned with quality materials.

.Key Words : 독서치료(bibliotherapy), 청소년(young people), 책(books), 상담(counseling)

I. 서 론

최근에 발달적, 임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가 매우 효과적인 상담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서미옥, 2002). 독서치료는 독서교육, 독서상담, 독서요법, 독서 클리닉과 같은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독서치료연구회, 2001), 초기 창시자인 Karl

Menninger와 William Menninger가 발달과 적응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해 개인적인 문제와 유사한 내용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Pardeck & Pardeck, 1997). 그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어의 *biblion*(book=도서)과 *therpria*(treatment of disease=치료)의 합성어로 인쇄물, 비인쇄물을 포함한 모든 장르의 문학과 모든 종류의 시청각 자료를 치료과정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¹⁾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Mee-Ock Suh,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E-mail : withsmo@hanmail.net

(최선희, 1997; 김옥준, 1999).

국내·외에서 훈련받은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상담기법의 장점은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이야기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 더 동기화가 될 수가 있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감정과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연관지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서치료는 서구사회에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적용이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오래곤주의 경우에는 이미 심리학자와 의사의 90%가, 미국전체로는 상담자의 상당수가 독서치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dams(2000)는 상담자의 70% 이상이 내담자에게 책을 추천하여 독서치료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담사례수와 독서치료 활용현황과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10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상담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담자보다 독서치료를 더 많이 활용함을 나타내었다(Starker, 1988; 이재연, 2001, 재인용).

그러나 국내의 상담기관, 병원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독서치료의 활용정도가 15.9%(전소희, 이재연, 2002)로 나타나 현장에서 아직 많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독서치료가 교육현장과 상담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견되었지만(김춘경, 1998; 서미옥, 2002; 윤정옥, 1998; 전소희·이재연, 2002), 상담자와 교사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학작품의 선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서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읽고 쓰기와 같은 문해 발달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관점에서 독자는

빈곳을 채우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도에서 책을 읽는다. 그러므로 독서는 문학치료의 수단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치료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변학수, 2002). 그동안 독서치료는 학업성취, 자신감 증진, 부적응 행동의 변화, 공포 및 불안의 감소(Persini, 1998), 자아개념의 증진(윤달원, 1990; 최선희, 1997), 우울의 감소(류혜숙, 1998)등 여러 범주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정(1998)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아동을 대상으로 '독수리의 눈'과 '브레이크를 밟자'라는 2권의 책을 읽게 하여 아동의 주의력 향상과 대인관계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내었다. Shechtman(1999)는 5명의 공격성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시와 동화를 매체로 한 독서치료로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됨을 보고하였다. Bhavnagri와 Samuels(1996), Honig와 Wittmer(1997), Mullen(1999)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친사회적인 주제와 애타적인 모델이 제시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동화를 읽게 하여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과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모방되는 효과를 밝히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독서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의 정립에도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도 있다(이희정·박옥화, 2001).

그러나 연령별 발달 수준에 따라 선정되는 도서의 목록도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그 예로 두세 살부터 6~7세 아동은 자기와 친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10~11세 아동은 상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12~15세의 청소년들은 동물이야기, 모험에 관한 내용, 추리물, 초자연적인 이야기, 스포츠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15~18세의 청소년은 전쟁에 관한 내용, 사랑 혹은 청소년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18~21세의 청소년기에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의미,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인생경험 혹은 성인기로의 전이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를 좋아한다(이재연, 2001).

독서치료는 고도의 상담기술을 갖지 않았어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적응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거나 성장과정에 필요한 요구를 갖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윤정옥, 1998).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이고,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상담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청소년에게 적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서를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서치료에 활용되는 문학작품들은 대부분이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사서 모임, 독서토론회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선별되고 있다. Doll과 Doll(1997)은 아동들에게 권장할 만한 책들을 목록별로 소개하고 있고, 미국에는 매년 우수한 동화를 선정하여 ‘칼데콧 상’을 수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서들은 외국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한 문화적인 차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tarker(1988)은 선행연구의 참고문헌을 통해 자료를 선정하거나 독서치료용 도서 목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도서를 선정한다고 하였고, 이희정과 박옥화(2001)는 한국 도서관 협회의 상황별 도서목록, 한국의 젊은 지성 117인이 권하는 스무살이 되기 전에 꼭 읽어보아야 할 책, 중앙일보가 선정한 좋은 책 100선, 한겨레 도서정보, 90년대의 책 100선, 동아일보의 화제의 책 등을 참조하여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10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최선희(1997)는 한국아동문학학회가 선정한 세계아동문학선집 60선 중에서 2권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미국은 이미 1930년대부터 사서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책을 수집하여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독서치료의 목적으로 도서목록이 수집되고 있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김춘경(2002)에 의해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도서목록이 탐색된 바가 있지만, 상담자들이 독서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요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성장기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서탐색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미흡하다.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성장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입시지옥에서는 그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서들이 선별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체나 방송,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에서 청소년기에 읽어야 할 책들을 추천하거나 소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문가들의 평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목록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청소년기에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된다면 학교현장에 독서치료를 적용되기가 더 용이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독서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도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대구에 위치하는 K대학교와 D대학교의 3개

강좌로 개설된 교육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 350명이 선정되었다.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 한 이유는 그들이 청소년기를 경험하는 동안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도서목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한 결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피험자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22명이 최종 분석 대상자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이다.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97명(30.1%), 여자 225명(69.9%)이고, 인문·사회계열(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불문과, 심리학과, 경영학과, 역사교육과 등)은 148명(46.0%), 자연·공학계열(수학교육, 생물교육, 전자전기 컴퓨터학과, 물리학과, 화학공학 등) 174명(54.0%)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검사 응답은 담당 교수의 협조 하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자신이 청소년기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권장하고 싶은 책을 1권씩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한 도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줄거리, 느낀 점과 추천하는 이유 등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검사응답 시간은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회수된 응답지를 중심으로 빈도 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최종 분석된 도서목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3인 이상의 연구대상자에 의해 추천되어야 한다. 이는 도서목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둘째, 국문과 전공 2인과 독서치료와 관련된 논문을 쓴 박사학위 소지자 1인, 박사과정의 보조연구자 2인에 의해 도서의 주제와 내용이 청소년에

게 적합한가를 검토 받았다. 셋째, 연구자와 5인의 보조연구자에 의해 선정된 도서목록은 주제별로 재분류되었다.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차분석을 통한 Kappa계수를 산출하였으며 .80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재분류된 도서목록은 본 연구와 관계가 없는 동료 2인에게 보여주어 동료심문(peer debriefing) 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도서목록은 138명(42.85%)에 의해 23권이 수집되어 빈도분석이 실시되었다. 나머지 184명((57.14%)에 의해 수집된 도서목록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거나, 2인 이하에 의해 추천되었으므로 본 자료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수집된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도서목록은 5인의 보조연구자에 의해 추천이유와 소감문 등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다시 재분류되었다. 연구자들의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보조연구자의 합의 하($kappa=.80$)에 크게 5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인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도서 둘째,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 셋째, 또래와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도서 넷째, 불우한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도서 다섯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도서이다.

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위한 독서치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도서는 8권으로 『호밀밭의 파

수꾼』, 『연어』, 『꽃들에게 희망을』, 『창가의 토토』, 『갈매기의 꿈』, 『선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이다』. 모두 51명(36.96%)의 연구대상자가 추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추천하는 도서에 대한 소감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1〉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도서 목록

도서명	내용	저자	출판사	종류	빈도(%)
호밀밭의 파수꾼	문제아 홀든 콜필드가 4번째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3일 동안의 기록이 중심줄거리이다. 홀든은 부유한 집에서 자랐지만, 현대사회의 추악한 속물근성과 지식인 계층의 위선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공부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하게 된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뉴욕의 뒷골목을 떠돌아다니던 홀든은 호밀밭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싶은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길을 떠나기 전, 홀든은 여동생 피비를 만나면서 믿음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J.D. 셀린저	소담출판사	소설	3(2.17%)
연어	모친 회귀성 물고기인 연어들이 떠났던 길을 거스러 올라와 알을 산란하고 죽는 과정을 동화한 것이다. 보통 연어는 검푸른 바닷물을 닳은 빛깔이지만, 동화의 주인공은 은빛 연어이다. 은빛 연어는 다른 연어들에게 놀림을 받지만, 자신의 내면을 발달라고 한다. 폭포에 도착한 연어 떼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쉬운 길보다는 연어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안도현	문학동네	동화	3(2.17%)
꽃들에게 희망을	줄무늬 애벌레의 성장이야기이다. 애벌레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정체감 없이 맹목적으로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서는 기둥의 대열에 합류한다. 그러나 노랑애벌레는 자신 속에 '나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나비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엄청난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고치가 되어 결국 나비가 된다. 줄무늬 애벌레는 자신이 힘들게 오른 꼭대기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가 되어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트리나 포올러스/전진희 옮김	한실미디어	동화	7(5.07%)
창가의 토토	토토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후, 다른 학교(도모에 학원)로 전학을 간다. 이 학교는 50명의 학생이 있었고, 무슨 과목이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부터 할 수 있는 학교였다. 그날 할 분량을 오전에 끝내게 되면, 오후시간에는 대부분 산책을 하였다. 교장선생님은 토토에게 "넌 정말 착한 아이란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토토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면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아이가 되었다.	구로야나기 테츠코/김남주 옮김	프로메테우스	실화소설	12(8.70%)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고등학교 동창생모임에서 마이클이 짧은 우화를 통해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한다. 그에게 감동을 준 우화는 4마리의 쥐가 어떻게 치즈를 얻게 되는 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쥐와 그렇지 못한 쥐들을 통해 삶의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스펜서 존스/이영진 옮김	진명출판사	소설	6(4.35%)

〈표 1〉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도서 목록 - 계속 -

도서명	내용	저자	출판사	종류	빈도(%)
갈매기의 꿈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주인공이다. 조나단은 먹이를 잡는 시간보다는 비행연습에 몰두해있다. 갈매기 무리들은 비행연습만을 하는 조나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추방하게 된다. 조나단은 쫓겨난 후에 자신처럼 비행을 통해 의미를 찾는 갈매기 무리를 만난다. 그곳에서 수많은 비행법을 체득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조나단은 자신이 배운 비행법을 다른 갈매기 제자에도 가르쳐준다. 배움과 삶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리처드 바크지움/송은실 옮김	소담출판사	소설	9(6.52%)
선물	어느 노인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더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년이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선물에 대해 깨우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노인이 되어버린 소년은 세 가지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3가지 선물이란 현재 속에서 살아라, 과거에서 배워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스펜서 존스/형선호 옮김	중앙M&B	소설	5(3.62%)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	폰더라는 40대 중반의 가장이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역사 속으로 환상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다. 폰더씨는 7명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면서, 성공을 위한 7가지 결단을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폰더씨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앤더 앤드루스 지음/이종인 옮김	세종서적	소설	6(4.35%)
추천 인원				전체	51(36.96%)

【사례 1】 : 호밀밭의 파수꾼

나는 고등학교 때 문제아라는 친구들과는 친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만을 할까'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 애들도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청소년들과 문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진 교사들이 읽었으면 한다.
《영어교육, 3학년 박○○(여)》

냉소적인 말을 하고 학교에서도 문제아 취급을 당하지만 홀등은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아이인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며 난 이시기에 무엇을 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회복지학과, 3학년 홍★★(여)》

【사례 2】 :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의 주인공인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바로 나였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과

정 중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숙제를 하고 보충수업도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따라하기에 급급했다. 줄무늬 애벌레뿐만 아니라 모든 애벌레가 무작정 왜 올라가는 지도 모른 채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과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애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주위의 애벌레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나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접을 받는 현실이나 유사한 것 같다. 결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모든 성공이나 자아실현에는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고 싶다.
《음악학과, 3학년, 김○○(여)》

【사례 3】 : 창가의 토토

학교 교육에 회의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울 느끼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또한 교사가 되려는 사범대 학생이 읽었으면 한다. 진정한 참교육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아이들

이 제각기 몸에 지니고 태어나는 소질을 주위의 어른들이 손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교정선생님의 말이 인상깊다.

《철학과, 2학년, 이◇◇(남)》

성격을 고치고 자신에 대해 무엇을 해야할 지 목표를 갖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적합한 책이다.

《지리교육과, 2학년, 김♠♠(여)》

【사례 4】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

이 책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내가 내 생활과 나 자신에게 무사안일주의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학교 때 난 학습방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고등학교 공부에 너무 방대해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데도, 나는 중학교처럼 무조건 처음부터 달달 외우는 방법을 선택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책을 내가 1시간 안에 모두 읽고 시험을 친다면,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핵심도 모른 채 읽기만 한다면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나의 공부방법에 어렴풋이 회의를 느꼈지만, 방법을 바꾼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배우는 내용은 점점 변화해 갈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내용과 과목을 공부하는데 매일 같은 공부 방법만을 고수한다면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다.

《지구과학교육과, 2학년, 이▲▲(여)》

나는 고 1때까지 소심한 아이였다. 특히 변화하는데 두려움이 컸다. 자신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었다. 소심한

2.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는 2권으로 13명(9.42%)의 연구대상자에 의해 추천되었다. 『지선아 사랑해』, 『오체불만족』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추천하는 도서에 대한 소감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5】 : 지선아 사랑해

청소년기에는 방황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소홀히 다루게 된다. 이 책을 읽어보고 자신이 지선아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가족의 소중함과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생물교육, 4학년, 차○○(남)》

【사례 6】 : 오체불만족

평소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하셨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표 2〉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 목록

도서명	내용	저자	출판사	종류	빈도(%)
지선아 사랑해	2000년 교통사고로 인해 화상으로 얼굴과 몸이 모두 망가져 버린 여대생의 실화이다. 여대생이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닥쳐 온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 지와 깊은 가족애가 감동을 준다. 여대생 지선아는 자신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한다	이지선	이레	수필	8(5.80%)
오체불만족	장애를 가진 오토가 부모님의 노력으로 일반학교에 입학한다. 선생님은 오토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도와주었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었다. 체육시간에도 오토는 철봉, 농구를 하였다. 오토는 중학교에 가서 농구부에 들게 되고 대학교때 미식축구부에도 들어간다.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사라지게 하는 수필이다.	오토다케 히로타다	창해	수필	5(3.62%)
추천 인원				전체	13(9.42%)

오토차량 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경영학과, 4학년, 이송송(여)〉

3.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독서치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도서는 『그러니 당신도 살아』, 『양파의 왕

따일기』, 『내겐 드레스 백 벌이 있어』의 3권이 다. 모두 22명(15.94%)의 연구대상자에 의해 추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추천하는 도서에 대한 소감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7】 : 내겐 드레스 백벌이 있어

초등학교 때 따돌리는 아이와 따돌림을 받는 아이가 있었다. 나는 물론 폐기나 매기처럼 따돌

〈표 3〉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도서 목록

도서명	내용	저자	출판사	종류	빈도(%)
그러니 당신도 살아	미쓰요는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자살을 결심한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퇴원은 하였으나, 비행청소년이 된다. 결국은 야쿠자 보스의 아내가 된다. 이혼을 하고 호스티스로 살던 중,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로 결심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계속 공부에 매진하여 변호사가 된다. 현재 그녀는 비행청소년의 선도에 힘을 쏟고 있다.	오하라 미쓰요/ 양윤옥 옮김	북하우스	수필	14(10.14%)
양파의 왕따일기	미희는 ‘양파’라는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는 그룹의 리더였다. 주위의 모든 아이들은 양파를 선망하고 있었고, 양파에 소속되고 싶어하였다. 주인공인 정화의 아버지는 이발사였지만, 정화는 의사라고 속이게 되어 양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미희는 독선적이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이다. 양파그룹의 정선이라는 아이가 미희보다 더 인기가 많게 되자, 미희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정화는 자신도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이런 일들을 모른 척 하게 된다. 결국 정선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마침내 연속이가 대자보 형식으로 미희의 횡포를 학급에 알리게 된다. 정화도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발사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미희에게 할말을 하는 아이로 변한다.	문선이	파랑새 어린이	동화	5(3.62%)
내겐 드레스 백벌이 있어	완다는 학교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이다. 항상 빛 바랜 파란색 드레스를 입는 가난한 집 아이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백벌의 드레스가 있다고 한다. 폐기를 비롯한 매기와 다른 아이들은 이런 완다를 거짓말쟁이라고 놀린다. 매기는 아이들이 완다를 따돌리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자신도 따돌림당하는 것이 두려워 참고 있었다. 어느 날 완다는 전학을 가게 되었고, 나중에 완다가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을 반 아이들은 알게 된다. 완다가 1등을 한 그림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 백벌이 그려져 있었다. 폐기와 매기는 미안함의 눈물을 흘렸다.	엘레노어 에스테스/ 엄혜숙 옮김	비룡소	동화	3(2.17%)
추천 인원				전체	22(15.94%)

리는 아이들 중의 하나였다. 우리 반에서 따돌림을 받는 아이는 정신 장애가 있어서 학년은 같았지만 연령은 어린아이 수준이었다. 남자아이들은 그 아이를 자주 때리고 도망가곤 하였다. 하지만 유독 한 명의 아이가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공부도 가르쳐 주었다. 나중에 장애가 있던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한글도 쓰게 되자, 반 아이들도 모두 태도가 달라졌다. 서로 숫자나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했고, 놀리거나 때리지도 않았다. 매기가 한 번쯤 용기를 내어서 완다를 감싸주었다면, 완다가 떠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전자전기 컴퓨터, 3학년, 신♥♥(남)》

【사례 8】 : 그러니 당신도 살아

이 책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 또한 왕따를 시키고 있는 학생들이 꼭 읽어보아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위해 이겨내야 하며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도의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영어교육, 2학년, 박수순(여)》

4. 가정이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이 불우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도서는 『팽이부리말 아이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소녀의 마음』, 『너도 하를 말나리아』, 『불량소년의 꿈』으로 5권이다. 모두 17명(12.32%)의 연구대상자에 의해 추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추천하는 도서에 대한 소

〈표 4〉 가정이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도서 목록

도서명	내용	저자	출판사	종류	빈도(%)
팽이부리말 아이들	인천에서도 가장 오래된 빈민지역의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쌍둥이 숙자와 숙희는 가난과 엄마의 가출로 힘겨운 삶을 살며 동준이와 동수 형제는 부모가 집을 나간 후로 단 둘이서만 산다. 영호 아저씨는 동수와 명환이가 본드에 취해있는 것을 나무라면서 이들과 가까워진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명희는 이 빈민마을이 싫어 이들을 외면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 이들을 지도하게 된다. 가출을 했던 아이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김중미	창작과 비평	소설	12(8.70%)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제제는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말썽꾸러기이다. 심한 장난 때문에 이웃과 가족에게도 구박을 받고 매일 맞는다. 제제에게는 집 뒷뜰에 있는 라임오렌지 나무가 친구이다. 제제는 늘 자신의 고만을 나무에게 털어놓게 된다. 제제는 포르투갈인과 비밀 친구가 된다. 뽀르뚜가를 위해 제제는 조신한 아이로 변한다. 그러나 제제는 식구들의 구박에 자살을 할거라는 고백도 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뽀르뚜가는 제제의 마음을 돌려놓는다. 그러나 뽀르뚜가는 열차에 치여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제제는 깊은 슬픔에 빠진다. 제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의 어린시절을 회상한다.	J.M. 바스콘셀로스/ 박동원 옮김	동녘	소설	6(4.35%)
소녀의 마음	가스리는 부모가 이혼을 하여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고민하고 흔들리며 성장해 가는 소녀의 일상을 발랄한 대화체로 풀어나가고 있다. “세상에 부모가 헤어져서 불행한 아이도 많지만, 부모가 헤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아이도 많아”라는 가스리의 대사가 가슴에 남는다.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책이다.	하이타니 겐지로/ 햇살과 나뭇꾼 옮김	양철북	소설	3(2.17%)

<표 4> 가정이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도서 목록 - 계속 -

도서명	내용	저자	출판사	종류	빈도(%)
너도 하늘 말나리아	이혼한 엄마와 사는 미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고아 소희, 엄마를 잃은 아버지와 사는 바우가 주인공이다. 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안으면서 주의사람들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읽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이금이	푸른책들	동화	3(2.17%)
불량 소년의 꿈	밤거리를 질주하는 폭주족으로 중학교 시절을 보낸 주인공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아동상담소를 거쳐 양 아버지에 의해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진다. 고등학교 은사의 도움으로 교사의 꿈을 키우게 되고, 나중에 교사가 된다.	요시아에 히로유키 지음/ 남도현 옮김	양철북	수필	3(2.17%)
추천인원				전체	17(12.32%)

감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8】 : 께이 부리말 아이들

가난과 소외에서 있는 이들을 께 줄 수 있는 것은 이 책에서 느껴지는 훈훈한 사랑과 관심이다. 요즘 경제불안에서 오는 가정 해체가 청소년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고 한다. 이들에게 마음을 살찌우는 책 한 권이 필요한 것 같다.

《생물산업기계공학, 3학년, 허<XX>(여)》

께이 부리말 아이들 중 상당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비행청소년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아팠다.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따뜻하게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그런 학생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제가 교사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책을 읽고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겼으면 한다.

《전자전기컴퓨터, 3학년 김♥♥(여)》

【사례 9】 : 너도 하늘 말나리아

하늘말나리아는 자신을 사랑하는 곳이다. 그 곳처럼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자신의 아픔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의 결손으로 유사한 아픔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읽어 될 수 있는 책이다.

《물리교육, 3학년 류◎◎(여)》

5. 열등감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열등감이 있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도서는 『너는 특별하단다』, 『가면 뒤의 소년 Sam』, 『해피버스테이』, 『얼굴 빨개지는 아이』, 『태양의 아이』와 같은 5권이다. 모두 25명(18.12%)의 연구대상자에 의해 추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추천하는 도서에 대한 소감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1】 : 너는 특별하단다.

상대방에 비해 자신이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분노와 열등감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것 같다. 이 동화는 우리에게 바운 가치를 세워줄 수 있는 것 같다.

《영어영문, 4학년, 조◎◎(여)》

【사례 12】 : 가면 뒤의 소년 Sam

셈이 조금만 더 정상적인 얼굴을 가졌음 좋겠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릅답아지기 위해 수술을 하고 께은 노력을 하는 세태를 비추어 볼때 매우 대조적이다. 우리는 셈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던 평범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외면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같다. 《지리교육, 3학년 윤★*(여)》

〈표 5〉 열등감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 목록

도 서 명	내 용	저 자	출판사	종 류	빈도(%)
너는 특별하단다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재주가 뛰어난 나무는 금빛 별표를 받고, 재주가 없는 나무는 잿빛 점표를 받게 된다. 판치넬로는 점표를 많이 받는 나무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자신이 좋은 나무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났는데 그 나무에는 아무런 표도 없었다. 엘리 아저씨는 판치넬로에게 '자신이 아주 특별하다는 말'을 듣게 되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판치넬로의 몸에 붙어 있던 점표가 떨어져 나간다.	맥스 루카토지움	고슴도치	동화	6(4.35%)
가면 뒤의 소년 Sam	Sam(샘)은 왼쪽 얼굴에 혹을 갖고 태어났다. 이 혹으로 인해 샘은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체중의 30%를 잃었다. 샘은 혹이 부어오르면 아픔에 시달리는 것 뿐 만 아니라 주위의 시선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14세에 13시간의 힘든 수술 끝에 샘은 예전보다 훌쩍해진 얼굴로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샘은 무리한 혹 수술의 화근으로 혼수상태에 빠진다. 희생적인 부모와 헌신적인 의사로 인해 3개월동안 혼수상태에 있던 샘은 다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게 된다.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는 희망의 이야기이다.	툼 출판 주니어/이진 옮김	한숲출판사	실화 소설	3(2.17%)
해피 버스데이	아스카는 생일날에 엄마로부터 '넌 태어나지 않아야 했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후에 아스카는 실어증에 걸린다. 요양 차 시골에 온 아스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외가에서 뜻밖에도 엄마도 어린 시절에 외로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엄마를 용서한 후에 아스카는 목소리를 찾게 된다. 어린 시절에 아픈 언니 때문에 사랑 받지 못한 엄마는 아스카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아스카의 12번째 생일날, 가족이 모두 모여 "해피버스데이"라고 한다. 아스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은 없다"고 말한다.	아오키 가즈오/홍성빈 옮김	문학세계사	소설	6(4.35%)
얼굴 빨개지는 아이	마르슬랭은 얼굴이 빨개지는 병이 있었다. 그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하는 병이 있는 르네라는 친구가 있다. 둘은 서로의 콤플렉스를 받아들이고 즐겁게 논다. 하지만 어느 날 르네는 이사를 가버린다. 성인이 된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장 자끄상베/김호영 옮김	열린책들	소설	7(5.07%)
태양의 아이	초등학교생인 후짱의 눈을 통해 아픈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기요시는 비행청소년이었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알맞은 시기이다'라는 희망을 가르치고 있다.	하이타니 겐지로/오석윤 옮김	개마고원	소설	3(2.17%)
추천인원				전체	25(18.12%)

【사례 13】 : 얼굴 빨개지는 아이

멀리서 들려오는 라토의 재채기 소리에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 기쁘다고 생각하는 마르솔랭과 멀리 보이는 붉은 얼굴에 단박에 친구임을 알아보는 아토.. 이들은 서로의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수학교육, 3학년. 박○○(여)》

【사례 14】 : 태양의 아이

이 소설을 읽으며, 우리사회에도 나쁜 환경을 안고 살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열등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기요시는 여세보이고 비뚤어 보이지만 조금만 정을 주면 한없이 여리고 정이 많은 아이이다. 오케나와 사قم들의 정으로 인해 기요시가 변화된 것을 보고, 나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생물교육과, 3학년. 양☆☆(남)》

게 적합한 도서는 『팽이부리말 아이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소녀의 마음』, 『너도 하늘 말나리아』, 『불량소년의 꿈』의 5권이다. 다섯째, 열등감이 있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도서는 『너는 특별하단다』, 『가면 뒤의 소년 Sam』, 『해피버스 데이』, 『얼굴 빨개지는 아이』, 『태양의 아이』의 5권이다. 연구대상자들이 추천한 소감문을 보면, 책을 통해서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책키북키(2004)는 청소년을 위한 334권의 도서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어』, 『창가의 토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갈매기의 꿈』, 『오체불만족』, 『팽이부리말 아이들』, 『소녀의 마음』, 『가면 뒤의 소년 SAM』, 『얼굴 빨개지는 아이』의 9권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23권의 도서 중에서 국내의 문학작품은 5권이고, 나머지 18권은 외국작품이다. 특히 『창가의 토토』, 『오체불만족』, 『그러니 당신도 살아』, 『소녀의 마음』, 『불량소년의 꿈』, 『해피버스데이』, 『태양의 아이』와 같은 일본작품이 7권이나 되어 청소년기에 일본문학을 많이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양서를 더 많이 출판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김춘경(2003)에 의해 이혼가정 아동의 독서치료를 위한 10권의 도서가 탐색된 바 있고, 이희정과 박옥화(2001)에 의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립에 효과적인 10권의 도서가 연구되었으나,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서들은 문헌연구와 문학 평론을 참조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2004)는 1991년부터 매년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을 연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1년 이내에 발행된 국내 도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목록이라서 제한성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문헌연구와 문학 평론만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서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도서목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2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서목록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도서는 8권으로 『호밀밭의 파수꾼』, 『연어』, 『꽃들에게 희망을』, 『창가의 토토』, 『갈매기의 꿈』, 『선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이다. 둘째, 신체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는 2권으로 『지선아 사랑해』, 『오체불만족』이다. 셋째,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도서는 『그러니 당신도 살아』, 『양파의 왕따일기』, 『내겐 드레스 백벌이 있어』의 3권이다. 넷째, 가정이 불우한 청소년에

참조하여 도서목록을 선택하는 것보다 연구대상자들이 실제로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 독서치료를 위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상담, 생활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서 목록이 조사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생각된다.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도서목록만이 선별되었으나, 앞으로 본 자료를 바탕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과 사례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독서치료의 매체는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도서뿐만 아니라 영화, 다큐멘터리와 영상매체도 포함되는데, 본 도서목록의 영역은 동화, 소설과 수필에 한정되었다.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한점이 뒤따른다. 후속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다양한 연령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목록도 조사, 비교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독서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이나 학교,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좋은 책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게시판이 개설되어야 하겠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 혹은 주제별 분류나 아동, 청소년 또는 대학생을 비롯한 성인 등과 같은 연령별 분류를 통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도서의 감상문이나 상담에 효과적이었던 책을 소개하는 사이트도 마련된다면, 독서치료가 현장에서 일반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독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학적 가치

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동일시와 통합의 단계를 경험한다면 상담과 치료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독서치료와 관련된 책의 안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 사서와 학교상담자간의 연계된 모임이나 활동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사서들은 이미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들을 추천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과정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윤정옥, 1998). 다만 독서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의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 상담자와 지역의 도서관 사서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고 교우문제, 이성문제, 진로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독서치료에 대한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워크샵과 이와 관련된 상담자 훈련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순히 책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주제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추후활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치료는 그 자체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과 병행되어 많이 사용된다(이재연, 2001). 선행연구에서 책을 읽고 난 후에 주제와 관련된 토론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글짓기 등과 같은 추후활동이 시행되는 것도 이러한 제한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칫 무분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추후활동은 문학적인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감소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추후활동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상담교사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학교현장의 재량활동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

였으면 한다. 현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필요 및 학생의 요구에 의해 창의적 재량활동이 운영될 수 있고, 중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연간 34시간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2단위를 배정하고 있다(김대현, 김석우, 2001).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에는 민주시민 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진로교육, 독서교육 등과 같은 범교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서교육이 시행되는 학교도 다수이다. 이러한 독서교육 시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책을 선정하여 읽고 추후활동을 실시한다면 청소년기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김규수·안연경·소성숙(2002). 동화를 통한 통합적 도덕교육의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6(4), 45-64.
 김대현·김석우(2001).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학지사.
 김옥정(1999). 주의력 결함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증후에 따른 치료효과 비교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태(1985). 청소년 비행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준(2000). 독서요법이 초등학생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경(2002). 이혼 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에 관한 이론적 고찰. *초등교육연구*, 15(2), 47-64.
 김현희(2001). 아동을 위한 독서치료 : 상호작용의 과정. 교육개혁과 유아교육. *한국유아교육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79-87.
 류혜숙(1998).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독서요법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변학수(2002). 치료로서의 문학 : 독서행위와 치료적 전략. *독일어문학*, 10(1), 47-70.
 서미옥(2002). 사회적 기술 훈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상호협력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달원(1990).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육성을 위한 독서요법의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정옥(1998). 독서요법의 이론과 적용. *도서관*, 53(1), 47-64.
 이성한(1999). 아동중심 소집단 놀이지도 활동과 사회성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11(2), 299-314.
 이재연(2001).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치료의 적용과 전망.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15(1), 147-157.
 이효정(1998). 동화책을 통한 소집단 토의가 협력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논문.
 이희정·박옥화(2001). 독서요법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립에 미치는 효과.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2(3), 331-351.
 전소희·이재연(2002). 아동상담자의 독서치료 활용 현황 및 인식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7(3), 39-61.
 책키북키(2004). <http://www.book-reading.or.kr>.
 최선희(1997). 아동의 자아개념과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독서요법의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정·이기숙(1999). 그림 동화책 읽어주기와의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275-291.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 연구회(2001). *독서치료*. 학지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웹진(2004). <http://www.kpec.or.kr>.

- Anderson, P. L.(2000). Using literature to teach social skills to adolescent with LD.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5(5), 271-279.
- Bedell, J. R., & Lennox, S. S.(1997). *Handbook for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John Wiley & Sons, Inc.
- Bhavnagri, N. P., & Samuels, B. G.(1996). Children's literature and activities promoting social cognition of peer relationships in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307-331.
- Buhs, E. S., & Ladd, G. W.(2001). Peer rejection as an anteced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 An examination of mediating pro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550-560.
- Doll, B. & Doll, C.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es Unlimited, Inc.
- Gresham, F. M., & Elliot, S. N.(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 American Guidance Service.
- Honig, A. S.(1999). Creating a prosocial curriculum, *Montessori Life*, spring. 35-37.
- Honig, A. S., & Wittmer, D. S.(1996). Helping children become more prosocial : Ideas for classrooms,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Young Children*, 62-71.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 Mullen, P. J.(1999). *The Grinch, Lorex, Yertle the Turtle and others as advocates in a literature-based collaborative group approach to social skills building in a therapeutic day school : a new use for Seuss*, degree of Doctor of Psychology, The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Pardeck, J. T., & Pardeck, J. A.(1997). Recommended books for helping young children deal with social and development problem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36, 57-63.
- Pergjini, V. (1999). The visual arts as a therapeutic process for young children. ED. 431523.
- Shechtman, Z.(1999). Bibliotherapy : an indirect approach to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0(1), 39-53.
- Starker, S.(1988). Psychologists and self-helpbooks : Attitudes and prescriptive practices of clinician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7, 70-77.
- Trepanier, M. L., & Romatowski, J. N.(1982). Classroom use of selected children's books : prosoci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21(1), 36-42.
- Wilder, A. A., & Williams, J. P.(2001). Students with severe learning disability can learn higher order comprehension skil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2), 268-278.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18일 채택